



예술가의 집

마로니에 아티스트 마켓

공원 예술상점

10월

노랑게 물들장!

마로니에 공원과 예술가의집에서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12시에 열고 5시에 닫고

공원작업소

전지의 작가시집 / 봄눈별 /
 스리랑카 텍스타일 프로젝트 /
 나무살롱 / 아트소스 / XIZI /
 거리작가 / 호키포키 / 꼭두꼭두 /
 My song Project / AGOSSIP /
 예술유랑프로젝트X예술나무 /
 IDEO's Art / cloudjam /
 Long distance dialogue /
 에브리바디헤즈스토리

예술상점

어슬렁의 드로잉 여행 /
 콤파스클럽 / 스튜디오곰곰 /
 Ether-mimas / 미상지 /
 초우상회 / 패슈퍼 / 한현아 /
 &dolphin / 씬딩스 어바웃 /
 Encore / 양강이 / 배용립 /
 It-Da / 파룻파룻 / 책방 만일

비 많이 오면 안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로구

“10월의 예술가를 소개합니다.”

[공원작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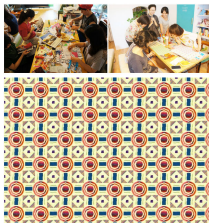
● 전지의 작가시점 <전지>



전지 작가가 직접 제작한 만화를 판매하며, 지극히 작가의 시점으로 초상화를 그려 파는 상점. 특히 '전지의 작가시점 자전거'가 함께 할 예정으로, 전지의 작가시점 자전거는 자전거에 그림 재료가 수납되어 있어 어디든 현장에서 그림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작업장입니다.

<http://blog.naver.com/mademinority/220097008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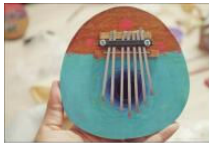
● 스리랑카 텍스타일 프로젝트 <장지혜, 최안나, 스키하라 유타>



스리랑카 텍스타일 프로젝트(STP)는 스리랑카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디자이너가 재구성하여 텍스타일 작품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이며, 턴턴패턴(TTPT)는 STP의 운영자들이 진행하는 '패턴만들기' 디자인 교육 워크숍입니다. 저희는 예술/교류/참여/창작 등의 건강하고 친숙한 순환가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www.srilanka-textile.com

● 봄눈별 <김봄눈별> / 공연



나는 인디언플룻과 칼림바를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의 숨결과 보드라운 손길로부터 음악은 시작됩니다. 나는 마음에 담긴 그림들을 꺼내고, 보여 주려는 사람입니다. 그림 속에는 따뜻함과 애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 나의 음악은 당신의 그림이며, 나의 그림은 당신의 음악입니다. 나의 마음은 당신의 눈동자 속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평화로움을 간절히 염원하는, 봄눈이 흩날리는 밤의 홀로 빛나는 별입니다. 나는 봄눈별입니다.

● 나무살롱 <김나무>



회화작가 김나무는 이미 기능이 종료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재료들로, 창의력을 발휘하면 여전히 그것들이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물건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노트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tiyuchan>

● 아트소스 <유캐리, 우미, 김진이, 김보민, 안수진>



그림책을 하는 일러스트 작가 5명이 아트소스라는 팀으로 활동. 그림책과 순수창작물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보입니다.

유캐리 : <http://blog.naver.com/ukeri>, 우미 : www.woo-mi.net

● **XIZI <강심지, 정연지>**



XIZI는 공책과 엽서를 비롯한 다양한 창작물을 만드는 작은 손공장입니다. 주로 실크스크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공책 만들기’ 워크숍을 통해 파지로 공책을 만들고 실크스크린 및 스텐실기법을 활용해 표지를 완성하는 작업을 나누고자 합니다.

<http://cargocollective.com/xizi>

● **거리작가 <홍부용, 김유리, 문문희>**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무엇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디지털 시간에 잠시 쉽표를 찍고 당신이 기억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3명의 거리작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지금-여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각색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초상화를 써드립니다!!)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3191>

● **호키포키 <김설희, 김한별>**



호키포키는 각자의 이미지를 동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처음 대면하는 순간의 이미지 중 하나를 포착하고 그것에서 연상되는 동물을 찾아냅니다. 표정이다 특유의 분위기, 특징적 외형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풍기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동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 **꼭두꼭두 <장인영, 김혜원, 김교은, 박현이>**



‘꼭두꼭두’는 ‘꼭 하고 싶은 일(Do)을 꼭두와 함께 이루세요’라는 뜻을 담은 주문 같은 이름입니다. 전통인형 ‘꼭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사라져가는 우리 이야기를 복원하고 인형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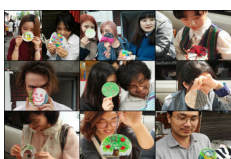
● **My Song Project <KAMA>**



소비자의 작사참여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음악 창작마켓 실현. ‘나만의 노래를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B9%B4%EB%A7%88&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126342 (네이버 인물정보)

● **예술유랑프로젝트 <문문>**



‘예술유랑프로젝트 Nomadic Art Project’는 다원예술공동체 Rince(린카)가 길 위에서 만드는 명랑·유랑·너랑(하는) 퍼포먼스거리 그룹입니다. 광장, 공원 등 열린 공간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ww.fb.com/poomba2014

● AGOSSIP <조우람 외>



‘AGOSSIP’은 art+gossip의 합성어로 예술과 잡담, 예술에 대한 대화, 수다와 소통의 예술화를 모토로 하는 모임입니다. 예술에 대하여 대화를 통해 접근한다는 것은 서로의 작품 활동 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작품에 담은 본인의 이야기와 감정, 그에 대한 대화를 통해 공유함에 따라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집단임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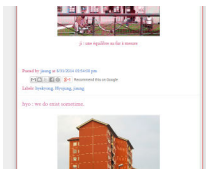
<http://art-gossip.blogspot.com>

● IDEO's Art <Cyril 시릴> -통역 및 판매 어시스트 <노은정>-



아직까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지 않아 보이는 ‘캐리커처’라는 분야를, 디지털과 결합한 저만의 방식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Long Distance Dialogue <정효정, 윤혜경, 현지성>



Long Distance Dialogue 프로젝트는 2011년 세 작가가 웹블로그를 통해 장거리(대구, 영주, 핸드<프랑스>)에서 이미지를 통해 대화를 이어나간 것입니다. 각 작가의 일상 공간에서 이미지를 찾고, 대화에 앞서 올린 이미지에 대한 질문 혹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미지가 담긴 아트북과 엽서, 포스터 및 에코가방을 선보입니다.

<http://www.longdistance-dialogue.blogspot.com>

● everybodyhistories <황지현>



나의 나무 인형 채색을 통한 미술치료의 시간을 마련합니다.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을 표현해 볼 기회와 함께 집에 가져가서도 부모님과 놀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워크숍을 기획합니다. 성인들도 내면아이를 표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cloudjam <박주영>



베지터블 소가죽을 이용한 팬던트 만들기, 작은 가죽조각을 이용해 다양한 모양과 색의 장식고리 만들기. 아이부터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완성할 수 있습니다. foodbox.net

[예술상점]

● 어슬렁의 여행드로잉 <이미영>



여행에서 그린 그림을 모은 어슬렁의 여행드로잉 시리즈 자가출판물 <동유럽과 지중해>, <남미·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을 소개합니다. 또한 어슬렁 여행드로잉의 작가 이미영은 ‘소비보다는 생산, 소유보다는 공유’라는 개념으로 스튜디오 노닥노닥에서 공간과 시간, 능력과 배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www.traveldrawing.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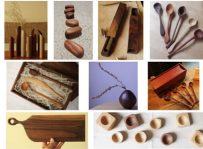
● 책방 만일 <이승주>



‘찾아가는 만일’은 동네 책방이 사라지고 있는 공원, 대학교 앞, 문화 소외 지역에서 만나는 이동형 책방입니다.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유연한 방식으로 책과 독자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twitter.com/bookshop_ifso

● 콤파스클럽 <성미선, 조경화>



원목 가구를 만드는 두 친구가 만나 쉽게 버려지는 나무 자투리를 모아, 월넛, 마호가니, 메이플 등 하드우드 원목으로 만든 스푼, 버터ナイ프, 빵 도마, 꽃병 등의 생활용품을 선보입니다.

frond.jo.tumblr.com

● 스튜디오 곰곰 <이용선, 도단이(김현숙)>



만화가 도단이와 회화작가 이용선의 ‘스튜디오 곰곰’. 곰곰은 예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작품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갖고자 만화와 일러스트 소품을 통해 공원 나들이를 나눕니다.

● ether mimas <김혜란>



‘온 우주를 담은 투명한 영혼의 에테르, 보이지 않지만 너와 나,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에테르라는 제목의 작가 책(독립출판)이 모태가 되어 그에 파생되는 우주의 조각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 우주 안에서 우리들, 별처럼 빛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우주돌을 탄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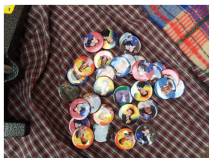
www.fromarin.com

● 미상지(未詳紙) <서수현>



미상지(未詳紙:모호한 종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만듭니다. 목적이 있기보다 그저 마음 안의 것을 밖으로 꺼내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초우상회 <최고은, 최하나>



영화과에 재학중이며 주성치를 좋아하는 영화학교 2인. 주성치 영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그 이미지를 토대로 뱃지와 티셔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 쾌슈퍼 <변은지, 윤지혜>



쾌슈퍼는 누간가의 ‘쾌;를 위한 작은 슈퍼. 쾌락 혹은 불쾌를 일으킬 무언가를 판매합니다. 그 첫 번째 기획인 ‘예측불가능한 파괴 프로젝트’. 핸드메이드 양초와 비누가 고전적 이미지의 석고상으로 만들어져 어떻게 사용되고 파괴되는지 기록합니다.

● 한현아



‘about 생감자’ / ‘livepotatoes’를 진행하고 있는 작가 한현아. 생감자는 단 한권의 生感者 되기 프로젝트입니다.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또한 생감자생산의 활동으로 독립출판 형태의 음반과 엽서 및 그림책 등을 (소량)생산 합니다.

● &dolphin <김은지>



&dolphin의 수제 마블링은 물 위에 길을 내어 ‘지금의 순간’을 담아내는 예술로, 마블링을 기반으로 한 일상용품을 만듭니다.

● 썸띵스 어바웃 <김혜미>



‘썸띵스 어바웃’은 매 호 다른 주제를 통해 -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비정기 일인 독립 잡지입니다. ‘something에 대해 이야기하며 누군가에게 something이 되어’라는 슬로건으로 썸띵스 어바웃 잡지와 메시지카드, 북마크와 소이캔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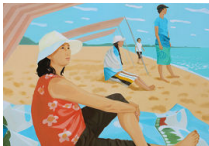
somethings-about.tumblr.com

● Encore <김가영, 김재영>



Encore 프로젝트는 앙코르라는 말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수명을 다한 제품과 재료들의 새로운 탄생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 현수막 재활용을 위해 제작한 Tiesto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이 시리즈의 경우 폐현수막을 재단 후 로프 형태로 엮어 아름다운 고유의 패턴을 지니게 되는데, 이 소재로 화분, 휴지통, 다용도 바스켓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화분에 직접 심을 수 있는 꽃과 식물들도 선보이고자 합니다.

● 양갱이 <양송희, 천유경>



일상의 소소한 것들과 사람을 그리고, 종이 인형을 컨셉으로 한 회화를 선보입니다. 현대미술에 쉽게 다가가기 위한 도움과 재미를 주고 싶습니다.

● 배용립



바느질을 통한 공예품의 제작 과정을 보여줌으로 핸드메이드에 대한 관심과 창작소품으로서 보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조각천과 바느질 소품을 내보이려 합니다.

● It-Da <최유경, 김수민, 임희진>



기계화된 생산기술에 수공예를 접목해 공예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유희성을 표현하고,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금속공예를 선보입니다.

● 파릇파릇 <송인영>



일러스트를 활용한 핸드메이드 제품인 뱃지와 책갈피, 마그넷과 메모집계를 제작해 판매합니다.